

기획

5·18 도청 사수 정상용·김종배씨 대담

1980년의 5·18광주민중항쟁이 벌써 한 세대가 흘렀다. 올해로 32년이 흐른 지금 '폭도'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던 시민들은 국가유공자가 됐고, 분노와 고통의 피난처였던 망월동은 국립묘지로 승격했다. 이제 5·18은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점이자 아시아 민주주의 운동의 교과서로 당당히 자리잡았다. 국가가 인정하고, 역사가 평가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5·18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어떠한 억압에도 당당하고, 정의로운 5월 정신을 올곧게 가꾸어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의 상징이자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역사인 5·18을 우리는 벌써 잊어가고 있다. 아니 일각에선 외면하고 심지어 폄하하고 있다. 5·18의 정신을 처음부터 되새기는 노력이 절실하다. 광주일보에는 27일 본사 회의실에서 5·18 당시 (옛)전남도청을 마지막까지 사수했던 정상용·김종배씨와 대담을 가졌다.

이들은 1980년 5월26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작전에 항전한 시민군으로서 김종배씨는 시민화생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정상용씨는 외부담당 부위원장을 맡았었다.



27일 오후 김종배(사진 왼쪽)씨와 정상용씨가 옛 전남도청 앞에서 1980년 5월 26일 계엄군에 맞서 싸웠던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정신 초심 살리고 공범단체 갈등 멈춰야”

5·18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있다. 이미 5·18이 역사 속 사건으로 잊혀져 가고, 박제화되는 분위기마저 엿보인다.

▲김종배=광주민중항쟁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궈낸 것이 아니다. 광주시민 전체가 일어서 군사독재에 항거한 의로운 투쟁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역사를 최근 광주시민 스스로 폄하하는 것 같아 가슴 아프다. 요즘 중동지역에서 일고 있는 반독재투쟁을 보면 5·18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이미 32년 전에 그것을 해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광주정신'을 잊었다. 5·18 마지막 날이었던 80년 5월26일, 계엄군 6개 부대가 전남도청을 둘러싸고 무장해제를 요구했지만 17명이 죽어나가면서도 총을 놓지 않았다. 계엄군의 황포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거한 투쟁정신이 바로 광주정신이다. 한 세대가 흐른 지금 광주시민이 해야 할 일은 그 광주정신을 일깨우고 계승시키는 것이다.

▲정상용=5·18은 상당기간 관련자들만의 항쟁으로 축소되고, 왜곡하는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살펴보면 5·18은 당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전 국민의 지지가 비롯돼 발발한 역사의 산물이다. 광주시민은 물론

시민군 본부였던 도청이 민주화전당으로... 역사현장 손상 아쉬워

국립묘지 승격됐지만 항쟁의미 못이어나... 상징적 콘텐츠 개발을

이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진상규명과 민주화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5·18 관련단체들과 당사자들의 사소한 사건에 시민들이 실망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당사자인 나부터도 시민들의 시선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부의 행태 때문에 자랑스런 역사를 비하하거나 낮추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 5·18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80년 5월의 정신을 현재에 맞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종배=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옛 전남도청 일대의 5·18 유적지가 훼손되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 도청은 시민군 본부였고, 상무관은 희생자의 시신을 보관

했던 장소였다. 분수대는 온 시민의 결의를 모았던 단상이었다. 역사성 있는 이 장소들을 길이 보존해서 남겨야 하는데 원형이 손상될 수밖에 없어 아쉽다.

망월동에서 제사도 못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국립묘지로 승격했다. 폭도로 불리던 광주시민들은 유공자가 됐다. 왜 우리는 이 자랑스런 역사를 계속 못 이어가는지, 광주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관련 단체만의 5·18이 아니라 광주시민 전체의 항쟁으로 재조명해서 시민 모두 긍지를 갖는 '광주항쟁'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제안한다.

▲정상용=30여년이 흐르는 동안 5·18행사는 큰 규모로 발전해왔다. 이것 만으로도 국민에게 어느 정도 인식의 뿌리를 내렸다고 판단한다. 또한 그 사이 관련단체들이 이뤄낸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여기에 그치지보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현재의

유리처럼 5·18을 알고 자산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많은 이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5·18을 역사적 자산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가야 할 때다. 여태까지 추모에 그쳤다면 한층 전문적이고 다듬어진 계승방안이 나와야 한다.

▲김종배=5·18 행사가 역사성을 담보하려면 역사적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5·18 당시 29일을 '시민장' 날자로 잡았지만 결국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 현재와 와서 이 장례식을 재연하는 것도 5·18의 중요한 콘텐츠가 될 것이다. 당시처럼 금남로 분수대에 관을 늘어놓고, 관을 메고 금남로를 지나 망월동으로 향하는 장례 행사를 하는 것도 적절하다.

▲정상용=매년 추모행사가 잘 치러지고 있지만 상징적 콘텐츠가 없다는 점이 동의한다.

시신을 돌려서 행사에 한정하지 말고 5·18의 역사적 가치를 교육현장에 투입하면 어떻까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5·18 연극제나 뮤지컬, 퍼포먼스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교육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작을 시상할 것이 아니라 대회 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관심과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 5·18을 소재로 한 영화나 만화도 있지만 더 다채로운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가 적극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30여 년간 5·18과 함께 해온 관련단체나 당사자들의 노고는 아무리 낮게 평가하더라도 적지 않음을 누구도 알고 있다. 분열된 모습에 시민들의 굽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성과를 무시하기 전에 힘을 보태는 것도 광주시민의 몫이다. 왜! 5·18은 곧 광주시민과 동일체이기 때문이다. 관련단체들도 배를 꾸는 노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민들의 공감은 거기서 시작될 것이다.

▲김종배=공범단체 설립을 놓고 벌어진 대립은 이제 멈춰야 한다. 시민들은 5·18단체들의 하나된 모습을 바라고 있다. 시민들도 5월 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의, 우리의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 또

▲정상용(61)=1980년 5·18시민학생투쟁위원회 외부담당 부위원장으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84년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 의장을 지냈다. 1987년 5·18광주민중항쟁동맹주최 회장을 거쳐 1988년 평화민주당 부대변인, 88년 제13대 국회의원, 92년 제14대 국회의원, 2002년 국민통합21 대외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종배(57)=1980년 5·18시민학생투쟁위원회 총위원장으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복권 후 87년 통일민주당 정무위원을 거쳐 92년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96년 제15대 국회의원, 98년 국회의원 원내부총무를 지냈다.

두에게 소중한 역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이번 4·11총선에 나서려했지만 5·18을 위해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나는)출마를 포기했다.

/정리=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부	
1. 유 동 자 산	3,427,809,377	1. 유 동 부 채	31,613,418,153
(1) 당 좌 자 산	3,427,809,377	1.매 입 채 무	1,807,032,356
1.현금및 현금성자산	623,040	2.단 기 차 입 금	28,149,797,507
2.매 출 채 권	3,384,867,244	3.미 지 급 금	1,382,487,177
3.단 기 대 여 금	1,754,411,694	4.매 수	9,995,990
대 손 총 당 금	1,754,411,694	5.미 지 급 비 용	129,934,588
4.미 수	14,085,880	6.부 가 세 예 수 금	134,170,535
5.미 수 수 익	253,354,337		
대 손 총 당 금	253,354,337	II. 비 유 동 부 채	39,343,386,429
6.선 급 비 용	26,219,203	1.장 기 차 입 금	38,300,000,000
7.미 수 법 인 세 환 금 액	14,010	2.건 조 손 실 총 당 부 채	2,642,214
		3.퇴 직 금 여 총 당 부 채	440,282,130
II. 비 유 동 자 산	46,580,558,936	4.예 수 보 증 금	600,462,085
1.토 지	11,040,702,167	부 채 총 계	70,956,804,582
2.건 물	21,405,673,95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349,560,969	자	
3.구 축 물	5,270,198,696	I. 자 본	9,4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98,873,298	1.보 통 주 자 본 금	9,400,000,000
4.기 계 장 치	15,019,624,141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249,265,209	II. 자 본 조 정	△24,055,000
5.증 장 비	3,986,468,714	1.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24,055,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790,183,801		
6.공 구 와 기 구	5,824,334,827	III. 결 손 금	30,324,381,269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094,383,598	1.미 처 리 결 손 금	△30,324,381,269
7.집 기 비 품	815,708,659	자 본 총 계	△20,948,436,269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99,885,347		
자 산 총 계	50,008,368,313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0,008,368,313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I. 자 산	202,646,063,856	I. 부 채	320,809,303,461
(1) 유 동 자 산	174,936,110,710	1. 유 동 부 채	40,533,859,406
1.현금및 현금성자산	904,751,780	1.매 입 채 무	230,275,108,802
2.매 출 채 권	△782,193,250	2.단 기 차 입 금	12,456,998,467
3.단 기 대 여 금	89,270,895,387	3.미 지 급 금	36,207,996,300
4.미 수	8,113,002,723	4.매 수	293,856,590
5.미 수 수 익	466,222,696	5.미 지 급 비 용	1,041,453,896
6.부 가 세 예 수 금	89,078,548	6.부 가 세 예 수 금	58,206,605,363
7.선 급 비 용	17,593,053,266	7.미 수 법 인 세 환 금 액	850,683,757
8.미 수	△3,779,953,651	8.미 수 수 익	5,045,659,224
9.미 수 수 익	911,855,387	9.미 수 수 익	5,899,820,145
10.부 채	2,438,026,500	10.부 채	1,494,793,987
(1) 유 동 부 채	16,084,190	(1) 유 동 부 채	32,375,214,676
1.매 입 채 무	2,837,278,171	(2) 비 유 동 부 채	12,540,433,574
2.단 기 차 입 금	27,709,953,146	(3) 비 유 동 부 채	379,015,908,824
3.미 지 급 금	27,709,953,146		
4.매 수	200,344,785,224	II. 자 본	277,339,900,000
5.미 수	2,529,520,041	1.보 통 주 자 본 금	277,339,900,000
6.부 가 세 예 수 금	5,259,520,041	2.보 통 주 자 본 금	84,680,100,060
7.선 급 비 용	193,005,841,242	3.보 통 주 자 본 금	20,807,760,260
8.미 수	42,869,250,342	4.보 통 주 자 본 금	63,862,340,400
9.미 수 수 익	28,989,164,189	5.보 통 주 자 본 금	△16,065,400
10.부 채	△87,621,000	6.보 통 주 자 본 금	△16,065,400
(2) 비 유 동 부 채	△14,239,322,348	7.보 통 주 자 본 금	△24,055,000
1.장 기 차 입 금	4,425,351,880	8.보 통 주 자 본 금	△337,984,940,004
2.건 조 손 실 총 당 부 채	△148,550,000	9.보 통 주 자 본 금	23,974,940,256
3.퇴 직 금 여 총 당 부 채	△1,493,622,728		
4.예 수 보 증 금	△298,601,000	III. 결 손 금	
5.미 지 급 비 용	△282,404,224	1.미 처 리 결 손 금	
6.부 가 세 예 수 금	385,280,675		
7.미 수	50,905,637,681		
8.미 수 수 익	10,821,341,436		
9.미 수 수 익	△131,591,772		
10.부 채	△7,263,360,258		
(3) 비 유 동 자 산	△47,340,786		
1.토 지	△4,333,764,944		
2.건 물	1,914,510,760		
3.구 축 물	2,895,597,181		
4.기 계 장 치	11,104,739,340		
5.증 장 비	△8,209,142,159		
6.공 구 와 기 구			
7.집 기 비 품			
8.미 수			
9.미 수 수 익			
10.부 채			
자 산 총 계	402,990,849,08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402,990,849,080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		부	
1. 유 동 자 산	4,408,353,576	1. 유 동 부 채	83,889,167,899
(1) 당 좌 자 산	4,408,353,576	1.매 입 채 무	2,472,587,869
1.현금및 현금성자산	623,040	2.단 기 차 입 금	61,521,097,800
2.매 출 채 권	4,360,960,988	3.미 지 급 금	1,602,396,839
3.미 수	46,480,783	4.미 지 급 비 용	8,136,213,681
대 손 총 당 금	△41,898,783	5.부 가 세 예 수 금	156,871,710
4.선 급 비 용	42,185,368	6.유 동 성장 기 차 입 금	10,000,000,000
5.미 수 법 인 세 환 금 액	2,180		
II. 비 유 동 자 산	81,126,617,444	II. 비 유 동 부 채	714,664,924
1.토 지	19,322,196,344	1.예 수 보 증 금	695,480,303
2.건 물	34,559,728,199	2.건 조 손 실 총 당 부 채	19,184,621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083,608,538	부 채 총 계	84,603,832,823
3.구 축 물	7,067,922,01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69,160,324	자	
4.기 계 장 치	26,990,867,667	I. 자 본	15,300,000,0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342,863,924	1.보 통 주 자 본 금	15,300,000,000
5.장 비	280,774,360	II. 자 본 조 정	△76,112,50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30,672,462	1.주 식 할 인 발 행 차 금	△76,112,500
6.차 량 운 반 구	74,821,214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4,203,362	III. 결 손 금	14,292,749,303
7.공 구 와 기 구	3,552,876,799	1.미 처 리 결 손 금	△14,292,749,303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39,413,825	자 본 총 계	931,138,197
8.집 기 비 품	603,274,85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405,921,567		
자 산 총 계	85,534,971,020	부 채 및 자 본 총 계	85,534,971,020